

| 공동 심포지엄 |

# 탈성장주의 시대, **교회**를 말하다

---

## 사회

김영철 (생명평화미당 집행위원장,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부원장)

## 발제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정재영 (실천신학대학교 교수)

이원돈 (부천 새롭교회 목사)

양희송 (청어람아카데미 대표)

---

2013.4.11 (목) 저녁 7시 | 명동 청어람 소강당

주최 : 생명평화미당,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청어람아카데미

후원 : 뉴스앤조이, 에큐메니안

# 탈성장주의 시대 ‘작은교회’에 대해 말하다

복지동맹과 신앙의 공공성 문제

///

김진호<sup>1</sup>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 대성장 시대

1960~1990년은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에서 ‘대성장의 시대’였다. 1960년에 한국 개신교 신자의 수는 전 인구의 2% 내외인 62만 명 정도였으나, 1995년에는 전체 인구의 19.7%인 876만 명으로, 무려 1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1990년 이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던 개신교 신자 수가 1990년대 이후에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1996~2005년 사이에는 1.4% 감소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체 및 감소 추세는 여전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데 이 대성장기에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대형교회가 그 성장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유럽과 비교하여 미국 개신교의 두드러진 특징은 대형교회가 성장을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한데 미국 기독교의 경우 전 인구의 무려 55%(약 1억 7천만 명)가 개신교 신자로 추정되는데,<sup>1)</sup> 그중 성인교인 2천 명 이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대형교회(mega-church) 수는 1200~1500개 정도다.<sup>2)</sup> 반면 한국의 개신교 신자 비율은 인구대비 18.3%(2005년 통계, 8,616,438명)인데, 그중 대형교회의 수는 거의 1천 개에 육박한다.<sup>3)</sup> 한편 1만 명 이상의 교회를 초대형교회(giga-church)라고 부르는데, 지난해 churchrelevance.com이 발표한 미국 초대형교회 리스트에 따르면 70개 정도의 교회가 여기에 속하

1) 로버트 D. 퍼트넘 & 데이비드 E. 캠프벨, 『아메리칸 그레이스』 (페이퍼로드, 2013), 31쪽 참조.

2) 김영빈, 「미국교회 출석교인 절반, 상위 10% 메가처처에 집중」, <크리스천투데이>(2005.6.1.)

3) 교회성장연구소가 2008년도에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대형교회는 전체 교회의 1.7%다. 교회성장연구소 교회 경쟁력연구센터 엮음, 『한국교회. 경쟁력보고서』 (교회성장연구소, 2006), 37쪽. 이 조사는 전국의 11개 개신교 교단 소속 864개 교회를 설문조사한 것으로, 95% 신뢰구간에서 표본오차가 ±3.1%라고 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2008년도 개신교 교회는 58,612개다(<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9726>) 이를 환산하면 2008년 기준으로 대형교회가 996개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온다.

며, 이중 2만 명 이상의 교회는 7개다.<sup>4)</sup> 그런데 교회성장연구소 홍영기 소장이 저술한 『한국 초대형교회와 카리스마 리더십』<sup>5)</sup>은 13개 교회를 초대형교회로 분류하고 있고, 이 책에 준해서 『복음과 상황』이 추산한 초대형교회는 14개다.<sup>6)</sup> 이 중 성인 출석교인 2만 명 이상의 교회는 7~8개나 된다. 요컨대 한국에서 교회 대형화 현상은 미국보다도 더 뚜렷하다.

반면 위의 2008년도 교회성장연구소의 조사에서 100명 미만의 교회는 52.3%, 연간 재정규모 5천만 원 이하의 교회가 31.0%다.<sup>7)</sup> 한데 이 조사결과는 과소 추산치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설문대상인 11개 교단들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안정된 교단들인 반면, 조사에서 배제된 군소 교단들은 상대적으로 미자립교회의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설문에 응답한 864개 교회의 평균치가 설립연수가 27년, 남성 전임교역자 2명, 여성 전임교역자 2명, 남성 집사 34명, 여성 집사 60명, 남성 장로 5명, 여성 권사 17명, 성인남성 출석자 74명, 성인여성 출석자 103명의 평균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sup>8)</sup> 설문에 응답한 교회들은 응답하지 않은 교회들보다 비교적 안정된 교회들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 개신교 3대 교단의 하나로 비교적 안정된 교회들이 많은 감리교의 경우,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에서 연말 경상비 결산액이 2,500만 원 미만의 교회를 미자립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감리교회 5,591개 중 약 40%에 달하는 2,225개가 미자립교회에 속한다.<sup>9)</sup> 그렇다면 전체 개신교 교회 중 재정규모가 2,500만 원 미만의 미자립교회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임이 분명하며, 아마도 (많은 추정치들이 얘기하고 있는 수치인) 50% 안팎일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한국교회의 급격한 성장은 대형교회가 추동한 현상이며, 그 과정은 매우 심한 ‘양극화’ 현상을 동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성장 시대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박종현 박사에 따르면 장로교뿐 아니라, 목회자 파송제도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던 감리교와 성결교에서조차 대형교회들은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장기간 한 교회의 목회를 전담하는 관행이 정착되었고,<sup>10)</sup> 이는 3선 개헌과 유신체제로 이어지는 박정희 정권과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이다.<sup>11)</sup>

이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대성장 시대에 한국사회도 급속한 성장기를 맞이하고

4) <http://churchrelevance.com/top-71-largest-gigachurches-in-america-2011-edition/>

5) (교회성장연구소, 2001)

6) 이승규, 「한국 대형교회 세대교체 현주소 진단...장년 출석인원 1만명 넘는 교회 기준」(<http://pcouncil.net/jboard/?p=detail&code=ilban-aa002&id=3116&page=3>)

7) 『한국교회. 경쟁력보고서』, 36~37쪽.

8) 『한국교회. 경쟁력보고서』, 36쪽.

9) 정택은, 「미자립 40%,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과제」, <기독교타임즈>(2009.8.13.)(<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64>)

10) 이들은 30년 내외의 기간동안 담임목사로 재직했고, 은퇴한 이후에도 ‘원로목사’라는 직함으로 사실상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11) 박종현, 「한국 오순절 운동의 영성—여의도순복음교회의 영성과 성장에 대한 시대사적 회고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82(2008.4), 10~14쪽

있었고, 성장의 주된 양식 또한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권력 자원을 독점한 상황에서 성장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성장주의적 총동원체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 빠른 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sup>12)</sup> 또한 구기득권세력을 상당부분 대체하였고 일부 보완한 '신기득권체제'가 이 시기에 정착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교회는 이 시기에 서북지역 장로교, 혹은 월남한 서북 출신 장로교 중심체제의 응집력이 이완되고, 교파와 출신 지역을 망라한 대형교회들 중심의 체제로 재구축되었다. 한데 이 시기에 정착한 기득권 체제는 이후 대성장 시대가 지나고 저성장, 아니 탈성장 시대에 이르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지닌다.

이와 같이 대성장 시대 교회와 사회는 '성공지상주의적 총동원 체계'라는 유사성을 지니며, 이 유사성이 그 시대를 운용하는 주된 원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그 시대 사회와 서로 연동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교회의 빠른 변모는, 그 시대의 지배체제가 갖는 문제점 못지않게 심각한 많은 문제점들을 내장하고 있었음에도, 전체적으로 사회와 불화하기보다는 잘 통합되어 있었고, 또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사회적 통합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농경사회에서 도시사회로의 이행이 급격하게 진행되던 시절에 아무런 보호망 없이 극한적 야만성의 도시공간으로 내던져진 이농자들의 대대적인 신자화는 그들이 사회적 불만세력 내지 전복세력이 되지 않고 이른바 산업역군으로 권위주의적 체제 속에 잘 흡수되는 과정과 병행했다. 또한 이 과정은 그들이 개개인이 성공한 이들에 대한 일탈자가 되기보다는 그들을 선망하며 열렬히 성공을 위해 매진하게 하는 과정과 맞물린다. 이 시기 대형교회 현상을 대표하는 조용기의 3박자 구원론(풍요, 건강, 신앙의 동시적 실현으로서의 구원 담론)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통합요소로서의 신앙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부유함은 증오나 질시의 대상이 아니라 도달하려는 목표다. 3박자 구원론은 그 목표를 신앙의 목표와 동심원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통합적 담론의 특성을 지녔던 것이다.

이것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 교회가 보여준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망 없이 진행된 산업화로의 맹렬한 질주 속에 내던져진 도시 주변계층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기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복돋아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교회와 사회는 서로 연동되어 있었고, 기독교 편에서 그런 흐름을 주도한 것은 대형교회와 대형교회를 선망한 대다수 '짜통 대형교회'<sup>13)</sup>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동성은 사회통합에는 기여했지만, 그러한 교회들은 그 통합이 내포한 무수한 야만성과 폭력성을 방조했다. 그런 점에서 대형교회와 짜통 대형교회는 그 야만적인 권위주의적 체제의

12) 공동체의 구성원이 성인 2천명 이상이 되는 공동체는 통합을 위해 매우 복잡한 조직과 운영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형교회들은 매우 단순한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운영도 비교적 간명한 편이다. 이것은 지도자가 권력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독재자형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교회에서 관철시키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동시대 한국사회 일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반면 민주화 이후 카리스마적 독재자가 퇴거하자 사회는 빠르게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공론장을 형성하면서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있음에도 심각한 통합의 위기를 겪고 있다.

13) 대형교회를 갈망한 중소형 교회들은 비록 크기는 대형교회에 못 미치지만 대형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대형교회적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데 열을 올리는 교회라는 점에서 '짜통 대형교회'라고 불렀다. 반면 이와는 달리 성장에 목표를 두지 않는 새로운 교회 모델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은데, 특히 크기가 작은 교회들은 훨씬 적극적으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기에 용이한 제도적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교회의 이념형적 대립점에 위치시킬 수 있는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

공범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데 이 시기 교회가 사회적 공공성에 기여하지 않은 혹은 소극적으로만 기여한 것은 아니다. 대형 교회가 주도한 성공지상주의와는 다른 흐름이 이 시기 개신교의 공공적 실천을 대표하였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기독교 사회운동기구들, 대중매체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중소형교회들은 그 수에 있어서는 개신교의 소수그룹에 속했지만, 그 파급력은 한국 개신교, 아니 더 나아가 시민사회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공공성의 측면에서 뚜렷한 궤적을 남겼다. 이들은 성공지상주의에 편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낳은 사회적 부조리, 인권침해 등을 고발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 탈성장주의 시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였고, 2008년 어간부터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도래했다는 불길한 추정이 나돌고 있다.<sup>14)</sup>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 견해지만, 성장지상주의를 지양하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sup>15)</sup> 그런 점에서 최근 독일과 일본 등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탈성장주의’ 담론은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이다.<sup>16)</sup> 이 탈성장주의 담론은 특히 신자유주의적 자본 우위의 시스템이 낳은 중산층의 파괴, 노동계층의 빈곤화,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기후재앙의 심각성 등을 비판하면서 자연생태계 친화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의료, 복지, 교육, 신에너지 등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한국교회도, 앞서 보았듯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고, 199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게 됐다. 과거 대성장 시대, 사회와 교회 간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호연동성이 높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심지어 청년계층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종교로 개신교가 꼽혔었다. 그때에도 개신교는 일방주의와 배타주의적 성향이 강한 ‘무례한 종교’였지만, 그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대성장 시대 개신교의 성장주의 담론이 이농자 등 사회 주변계층을 대대적으로 포용하였고 능동적인 사회적 생산자층으로 재무장화함으로써 사회의 긍정적 시선이 많았었다.

한데 민주화 이후 사회는 권위주의의 청산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권위주의가 흔들리지 않는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심한 종미(從美)적 태도, 특히 미국이 이

14) 정남기,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한겨레신문>(2008.12.12.); 「삼성경제연구원 “원고-엔저 계속 땀 한국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할 수도”」, <동아일보>(2013.3.14.)

15) 강철규, 「'성장지상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로」, 『Economy Insight』 13호(2011.5), 26~27쪽.

16) 페트라 판츨러 & 프리츠 포어홀츠, 「경제성장주의와 결별하라」, 『Economy Insight』 8호(2010.12), 88~91쪽; 「탈성장주의 바람, 주류사회로 확산」(<http://blog.daum.net/kgssarang1/8268877>)

라크, 아프간 등에서 일으킨 전쟁까지도 지지하는 친미 호전적 태도는 개신교가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라는 인상을 뚜렷하게 새겨놓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대중문화에 대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교회는 문화적으로 지체된 낡은 공간으로 지목되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사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기여할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즉 교회와 사회 간의 연동성의 와해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에 처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거 대성장 시대에 조율된 신학교육체계와 교회운영체제는 거의 개혁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산 성장주의 신기법들이 신학교와 교회를 휘젓고 있다. 신학교는 변화된 사회와 사람들을 묻는 학제적 기획이 전무한 가운데 신학생 양성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교단본부는 교회의 사회지리학적 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목회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교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 성장의 기획들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즉 성장주의적 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성장은 멈추거나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심포지엄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오늘 우리의 변화된 사회를 읽으면서 교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 이를 통해 기독교 대중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이 심포지엄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개신교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저서들의 출간이 계속되었다. 우리는 그중 지난 2012년에 출간된 몇몇 주목할 만한 저작들의 문제의식을 화두삼아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이 저작들은, 그리고 그밖의 많은 저작들은 공히 한국교회의 위기를 성장지상주의, 그리고 이와 연결된 문화적, 성적, 계급적, 종교적 배타주의와 권위주의 등으로 보고 있다. 이 심포지엄은 성장지상주의를 초점으로 삼고 이 모든 문제적 요소들을 아우르는 비판적 관점을 공유한다. 하여 우리는 이 심포지엄의 화두를 ‘탈성장주의’로 삼았다.

우리가 말하는 탈성장주의는 두 가지 층위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다. 첫째는 외적(사회적) 변화의 층위이고, 둘째는 내적 요청의 층위다. 전자에는 성장지상주의의 청산을 도모하는 탈성장주의 기획은 교회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시대의 요청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함축되어 있다. 후자는 한국교회의 성장지상주의가 너무 지나친 탓에 어떠한 대안적 기획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교회 중심적인 내적 제도의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데 탈성장주의적 신학과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성장지상주의는 교회의 팽창을 핵심으로 하는 신학적 신앙적 기획이다. 한데 팽창은 언제나 양적 비교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다. 하여 더 큰 성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많은 사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형교회를 탄생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대형교회가 교회들 사이에서 성공한 교회라는 의미에 한정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2천 명 이상의 성인이 최소한 한 주에 한번 이상을 모이는 사회적 결속체다. 그만한 풍부함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결속체를 시민사회 속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교회는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대단히 높다. 그러므로 대형교회는 시민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적 결속체에 속한다. 그것은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대형교회는 강력한 사회적 권력집단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여 대형교회의 성공주의는 신앙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주의적 함의를 포함한다.

이렇게 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성공주의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결합될 때 그 성장지상주의는 주변으로부터 종종 폭력적인 팽창주의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더욱이 대형교회가 계층적 성향을 가질 때 그 성장지상주의적 신앙행위는 계급적 배타주의를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오늘 한국의 교회는 이런 점을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다고 시민사회로부터 일컬어지고 있다. 하여 사람들은 오늘의 성장지상주의적 교회를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회적 결속체라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성장지상주의를 청산한다는 것, 탈성장주의적 신학과 신앙을 추구한다는 것은 교회가 사회적 공공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을 뜻한다. 신앙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서는 말했다. 요컨대 신앙은 (교회의 팽창이 아닌) 이웃의 공공성을 확대하려는 실천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탈성장주의적 신학과 신학이 추구하는 이웃의 공공성 확대 실천이란 무엇일까?

## 복지동맹과 ‘작은교회’적 신앙의 공공성

1990년대, 특히 1997년 이후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중산층의 몰락과 사회적 양극화를 포함하는 사회적 격차성의 심화에 있다.<sup>17)</sup> 물론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세계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내포한 구조화된 위기 양상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OECD에 속한 다른 국가들보다 좀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그것을 억제하기보다 심화하는 국가 차원의 행동이 두드러졌다. 여전히 국가는 수출주도형 성장지상주의에 몰입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 차원의 행동이란 성장지상주의를 위해 수출 주도형 사회경제 시스템에 몰두하는 것, 그러한 정책과 조치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기업에게 절대 유리한 사회체제가 점점 더 심화되었음을 뜻한다.

전 세계적인 구조화된 위기와 그것을 더욱 심화시켜온 국가, 이것은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반작용을 낳았고, 그것이 최근 복지담론의 고조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는 복지체제에 대한

17) 박명림, 「민주화에서 인간화로: 21세기 한국사회의 현실과 이상」(제3회 여해평화포럼 대화록: 오래된 새길 인간화, 2011.3.30.); 황규성, 「한국의 격차 재생산 구조화: 틀과 사회적 성격」(대화아카데미 포럼: 격차 사회의 그늘, 2012.9.21.).

강력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각 정치세력들은 앞 다투어 복지의제를 내세우면서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sup>18)</sup> 복지는 오늘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공성의 의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복지의제 경쟁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복지의 제도화를 실행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의 절대다수가 우파적 편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의제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어느 수준의 복지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의 의심이 깊다.

바로 이 점에서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Model)적 관점에서 복지동맹(Welfare Coalition)의 요구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유럽과 같은 좌파정당과 강력한 노동조합이 연대하는 형식의 정치적 동맹은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다. 하여 의제연합 형식의 사회적 동맹론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sup>19)</sup>

이러한 사회적 동맹은 선거연합 때에 거대한 실체적 연대로 작동함으로써 복지의제를 정치화하는 힘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일상적인 때에 복지동맹은 실체적 성격보다는 복지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담론적 연대의 형식을 띠며, 간혹 미시적 혹은 중범위적 의제연합 형식으로 실제화되곤 한다. 이 점에서 나는 ‘작은교회’를 주목한다. 앞에서 명명한 ‘짜퉁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적 가치에 신앙적 영성이 회수된 중소형 교회로 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교회’는 대형교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이념형으로서의 소형교회를 가리킨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공지상주의적 프로그램을 청산하려는 소형교회라고 할 수 있다.

‘작은교회’는 규모가 작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가질 수 없는 요소를 가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작은교회’는 더 소통적이며 덜 배타적이다.

‘작은교회’는 자기 소유의 공간을 가질 수 없기에 목사의 공간과 평신도의 공간의 이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교회 공간을 실현시킬 수 없다. 하여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불리하다. 또한 소형이기에 대면성(facibility)이 높으므로 목사는 신자에게 타자적인 카리스마적 존재로 부각되기에 불리하다. 이는 반대로 목사와 평신도는 소통적이며 친화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작은교회’는 내적으로 더 소통적이며 덜 배타적일 가능성에 열려 있다.

또한 ‘작은교회’는 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므로, 이웃과의 연대에 더 절실하다. 게다가 교회의 현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다른 활동을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는데, 많은 ‘작은교회’들은 국가 복지의 민간위탁기관이 되거나 사회적 기업, 기타 사회복지 활동을 하곤 한다. 그러면 교회당은 신앙의 장소일 뿐 아니라 지역적 공공성을 실행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즉 교회당은 이웃에 개방된 장소성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는 교인들로 하여금 이웃에 대해 개방된 신앙을 갖도

18) 고원은 복지가 새로운 정치균열(political cleavage)의 요소로 부상한 결과 각 정당들이 앞 다투어 복지의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본다. 고원, 「한국에서 복지의제의 지배적 정치담론화 과정 분석」, 『경제와 사회』 95(2012.9) 참조.

19) 김영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동맹」, 『시민과 사회』 19(2001) 참조.

록 이끈다. 하여 ‘작은교회’는 외적으로 더 소통적이며 덜 배타적일 가능성에 열려 있다.

이렇게 소통적이며 개방적인 종교성을 형성하는 데 친화적인 ‘작은교회’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대형교회나 ‘짜퉁 대형교회’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면 ‘작은교회’와 그 신자들은 복지 공론장의 일원이 되기에 훨씬 유리하며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의제연합으로서의 복지동맹의 일원으로 활동하기에 더 유리하다.

실제로 수많은 ‘작은교회’들은 종교기관인 동시에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국가복지의 민간위탁기관이거나 혹은 민간 사회사업기관을 겸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한국사회에서 교회만큼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종교나 사회단체는 없을 것이다. 특히 ‘작은교회’는 성장주의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 앞서 말했듯이, ‘작은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덜 배타적이고 더 소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복지기관일 뿐 아니라, 복지제도를 더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동맹의 일원으로서 더 안성맞춤이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작은교회’는 재정의 어려움과 기관 운영의 낙후성 때문에 금전으로 인한 교인간 혹은 이웃간 분쟁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작은교회’들이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신학적 담론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지상주의적 신학이 아닌)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신학적 재무장을 결여하고 있다. 즉 활동은 과잉인데 의식은 결핍인 양상이 ‘작은교회’의 공공신학적 현실이다. 게다가 교단들은 제도적으로 대형교회 중심적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교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작은교회’의 목회자들과 일부 교인들의 주체화되는 더욱 방해받게 된다.

이런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교단들을 가로지르는 ‘작은교회간 연합’이 요청된다. 이때 권위주의적 모델을 지향하는 ‘조합’ 형식의 조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학적, 신앙적으로 작은교회적 공공신학의 형성을 위한 활동이 요청된다. 이것은 신학연구자, 목회자들, 교인들이 함께 하는 다각도의 소통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작은교회’는 오늘 우리사회의 공공성에 기여하는 개신교적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개신교 신앙의 위기에 대한 탈성장주의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탈성장주의 시대에 교회 공동체의 의미

///

정재영<sup>1</sup>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종교사회학

## 1.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의 시사점

통계청이 2005년에 실시하여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내용 중에서 종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3대 종교 중에서 불교는 3.9% 증가했고, 천주교가 74.4% 증가한 반면에 개신교는 1.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통계청의 조사 결과, 한국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단순히 성장이 정체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보아야 한다. 전래 초기 한국 교회는 비록 그 수가 적고 교인 수도 적었지만, 남녀차별과 신분 차별을 철폐하며 사회를 앞서나가면서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스러운 종교의 영역마저도 세속 가치에 매몰되어 교회에 대한 평가를 양과 수의 측면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의 개신교가 7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개신교 인구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 인구 역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런데 2005년 조사 결과에서 보는 대로 불교와 천주교 인구는 여전히 증가했는데 유독 개신교 인구만 감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개신교가 사회에서 공신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많은 개신교 관련 조사에서 개신교가 공신력을 잃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원인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개신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으로서의 한국 교회도 사회에서 기대하는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교세 확장과 교회 건물 건축, 교권 유지 등 세상과는 벽을 쌓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래 초기 한국 개신교는 사회 부조리를 혁파하고 새로운 가치 질서를 제시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오늘날의 개신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뿐, 공공의 선이나 선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제 한국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직시하고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교회 성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의 양극화 현상과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탈성장주의와 교회 공공성 회복의 대안으로 ‘작은 교회’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국 교회의 양극화 현상<sup>20)</sup>

요즘에는 1년에 3천 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요즘 교회의 양적 성장은 더욱 어려운 지경이 되고 있다. 특히 교인들의 큰 교회로의 쏠림 현상 때문에 개척 교회나 작은 교회의 경우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2009년에 국민일보 조사에 의하면 통계청이 집계한 한국 교회 5만2905개 중 93%에 해당하는 4만9192개가 소형 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목사, 사모, 부 목사, 전도사 등 교회 종사자 숫자가 1~4명이면 소형 교회, 5~9명이면 중형교회, 그 이상이면 대형교회로 분류해 볼 때 소형교회 수가 90%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크리스천리더십연구소의 자료에서는 80~90%가 성인 교인수 150명 이하인 소형교회라고 하고, 이중 대부분이 30~50명 규모의 교회라고 하여 큰 교회로 교인들이 몰리고 작은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더욱 줄어드는 이른바 교회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가 실시한 목회자 의식 조사에서는, 설문에 응한 목회자 430명 중 58.1%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에 응답하였고, 33.3%가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에 응답하여 91.4%가 양극화 현상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담임 목회자들이 다른 지위의 교역자들에 비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목회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것은 수도권에 많은 교회가 몰려 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sup>22)</sup>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기존 교인이 교회를 옮기는 이른바 ‘수평 이동’이다. 2005년 한미준(‘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줄임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20) 이 내용은 정재영, 『한국교회, 10년의 미래』(서울: SFC, 2012), 9장 4절에 있다.

21)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8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개신교 교회 수는 58,404개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인구 832명당 교회 1개가 있는 셈이다. 이 수치는 전국에 있는 병의원 수(한의원과 보건기관 포함 55,449개)와 비슷한 수치이다. 이 조사에서 천주교 성당은 1,511개, 불교 사찰은 21,985개로 파악되었다.

22) 이에 대하여는 정재영, 『한국교회의 종교사회학적 이해』(서울: 2012, 열린출판사), 6장을 볼 것.

57.9%인 560만 명이 교회를 옮겨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회를 세 번 이상 옮긴 교인도 300만 명이나 되고 있으며, 한국 교인들은 평균 3회 정도 교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회 이동의 주요인으로는 이사, 결혼, 거리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1999년에 조사한 결과에 비교하면, 옮겨 본 경험은 59.7%로 큰 차이가 없으나 세 번 이상 옮긴 교인은 250만 명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교회 옮긴 회수도 평균 1회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교회 이동의 주요인이 이사, 결혼, 거리 등의 환경적 요인이라면 지리적 이동이 더욱 빈번하게 될 미래 사회에서 교인들의 교회 이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평이동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 교회성장연구소의 결과에서는 27.5%가 교회 이동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조사 대상자에 도시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추정된다. 도시 거주자는 비도시 거주자에 비해 거주지를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거리상 교회를 옮길 가능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회 이동은 대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교회는 더욱 커지게 되고 작은 교회는 성장하기가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형 교회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소형 교회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어 결국 전체 한국 교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필자가 실시한 목회자 의식 조사에서는, 작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하여 가장 많은 23.7%가 “체계적인 교육의 부족”에 응답하였고, 23.3%는 “평신도의 의식 부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8.6%는 “목회자의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헌금에 대한 부담”(12.1%), “개인 생활의 노출”(11.9%), “시설의 불편”(8.8%)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교회들이 갖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에 대하여 가장 많은 25.8%가 “중대형 교회들의 지원”에 응답하였고, 이와 비슷한 25.1%가 “지역 교회들의 연합”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담임 목회자의 헌신”(17.9%), “교단의 지원”(14.0%), “교인들의 헌신”(10.5%), 작은 교회들의 연합(7.0%)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수평이동 현상은 양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은 시장과도 같은 상황에서 경쟁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를 소비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sup>23)</sup> 소속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교인들은 부담 없이 필요에 따라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도 하나의 지위 집단으로서 작용하게 되고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의 경우, 과시적 소비 행위가 교회 선택에도 작용하여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멀리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을 변화를 맞게 될 가능성이 많다. 대형교회는 익명성

23) 종교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피터 버거, 「종교와 사회」(이 양구 옮김)(서울: 종로서적, 1982), 156쪽을 볼 것.

이 보장되어 부담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점차 유동성이 증가하고 파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는 점차 공동체를 추구하는 욕구가 증대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형 교회는 공동체를 제공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 세대에 비해 종교적 충성도가 낮은 젊은 세대들은 무조건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것이 교회 운영에도 반영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명하복을 강조하게 되는 관료제적 대형 교회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회중 중심의 중소형 교회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기존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는 청년들의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들의 영적인 욕구에 민감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에게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들의 영적인 욕구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 3. 가나안 성도를 통해 본 한국 교회<sup>24)</sup>

최근 한국 교회가 신뢰를 상실하여 전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현실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 다녔듯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인 것과 같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또는 의도적으로 ‘기성’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교계에서 집계한 1,190만명이라는 개신교인의 숫자와 통계청에서 집계한 860만이라는 수치상의 불일치로부터 잃어버린 혹은 소실된 300여만 명의 개신교인(본인들을 포함)을 지칭하는 말로 ‘가나안 성도’ 혹은 ‘300만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구주택 총조사는 자기 확인 방법으로 조사되므로 현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지 또는 출석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개신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모두 포함해서 집계한 수가 860만 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860만 명 외에 추가로 300여만 명의 개신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주위에서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2004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로 추정해 본다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수가

24)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정재영, 「한국교회, 10년의 미래」(서울: SFC, 2012), 10장 5절에 있다.

무려 758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198만 명을 제외한 560만 명이 개신교를 믿다가 무종교인이 된 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나안 성도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sup>25)</sup> 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개신교인이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10.5% 안팎을 차지하였고, 한 달에 1번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람이 3.8%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보다 다양하게 분화하고 다원화되는 경향으로 이러한 가나안 성도는 점차 증가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교와 관련하여 중심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구에서는 이미 ‘소속되지 않은 신앙’(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sup>26)</sup> 이것은 세속화의 한 측면으로서 제도화된 종교 형태를 벗어나 자신들의 신앙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piritual but not religious) 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을 통해서 파악되는 종교적 특성은 권위에 대한 복종보다는 자기식의 신앙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종교사회학자인 로버트 우스노우(Robert Wuthnow)는 이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를 D.I.Y. 종교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취사선택을 하여 자기자신의 종교를 만든다는 것이다. 가나안 성도들에게서도 이러한 경향이 포착된다. 스스로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관념이 기존 권위와 충돌할 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권위에 복종하기보다는 자기자신의 기독교를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덜하고 교회를 쉽게 옮기는 경향이 있어, 기성 교회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아예 자신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기도 한다.

필자는 가나안 성도들이 모여 있는 ‘가나안 교회’ 세 곳을 방문하여 참여관찰하고 가나안 교회 참여자들과 집담회 형식으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세 곳 모두 참여자는 20명 이내의 적은 인원들이 모이고 있었고, 모두 주일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한 곳은 다양한 연령대에 속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안수 받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다른 두 곳은 10~15명 정도로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설교는 신학 교육을 받은 전도사와 함께 일반 평신도도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고 있었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세 교회에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적은 수가 모여서 공동체적인 환경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리더십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적은 수가 모이기 때문에 친밀한 대면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예전 예배를 드리는 한 교회 외에 두 곳은 예배도 둘러 앉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드린다. 그리고 제도화된 기성 교회와 달리 이들은 특정인이 리더십이나 권위를

25)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서울: kmc, 2010), 135쪽.

26) 이에 대하여는 Grace Davie, *Religion in Britain since 1945: Believing without belonging*(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를 볼 것.

독점하지 않고 구성원들 모두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참여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자 특징은 이 교회들은 예배 후에 그 날의 설교를 나누는 것이다. 이 세 교회 모두 설교 후에는 매일 설교에 대해 받은 감동을 나누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며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설교에 대한 비평을 하기도 한다.<sup>27)</sup> 기성 교회에서 설교 후에 설교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고 설교자에게 설교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그것은 교회 전통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자로서의 목회자가 선포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것은 상당 부분 일방성을 떨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가나안 교회에서 설교에 대해 토론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교회 전통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관과 교회관을 표출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가나안 성도들은 신앙은 고착화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에 의해 정답이 제시되거나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질문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수용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이다.<sup>28)</sup>

이러한 특징이 자칫 기성 교회와의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앞으로의 사회가 더욱 다원화될 것임을 감안할 때 교계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sup>29)</sup> 이러한 가나안 교회를 선불리 제도권으로 흡수하려고한다면 자칫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들이 기성 교회를 떠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기성 교회가 제도화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보다 수용성 있는 공동체적인 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이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보다 근본으로부터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30)</sup>

교회는 스스로 공동체임을 표방하지만 그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다. 영성과 사회성의 균형을 이루며 바람직한 공동체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야기되는 세이비어 교회의 고든 코스비 목사가 “참된 교회와 공동체에는 극도의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던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교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서로 간에 소통

27) 가나안 교회는 아니지만, 최근에 등장한 여러 형태의 대안적 교회들 중에는 예배 처소를 주일에만 빌리거나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이면서 예배 후에는 설교에 대해 토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 여기서 소개한 내용들을 기존의 교회 전통에서 보면 교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신학적인 판단보다는 단순히 '믿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교회라고 지칭하였고, 자신들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여 교회라고 표현하였다.

29) 이미 신학계에서는 전통적인 설교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방향의 선포가 아닌 소통으로서의 설교를 강조하는 보기로, 루시 앳킨슨 로즈, 「하나님 말씀과 대화 설교: 변혁적 설교로서의 대화 설교」(이승진 옮김)(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을 볼 것.

30) 제도화의 딜레마란 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유지·존속하기 위해서는 교회 역시 제도화될 필요가 있지만, 제도화가 될수록 비인격적인 관계나 관료주의화와 같은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4. 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작은 교회’의 가능성

한국에서 선교 초기에는, 개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공부하며 설교를 들었던 동네 가옥의 사랑방이 교회의 역할을 하였다. 초기에 여자 선교사들은 안방에서, 남자 선교사는 사랑방에 들러 각각의 공간에서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으나 이후에 안방이라는 사사로운 공간에 갇혀 공공의 자리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여성들도 교회의 공공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남녀와 신분의 차별이 없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활성화되었으며 자원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면서 공공의 공간으로서 수평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시민들의 공간이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에 속한 교인은 공공의 공간에 참여하는 자를 뜻하였고, 초월의 가치에 자신을 이어 기존하는 관행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새로운 삶에 헌신하겠다는 공중 앞에서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의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기독교 시민으로서의 직분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신앙과 삶은 철저히 분리되어 자신의 신앙이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 정신에 따라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공간은 그 자체의 논리와 기제에 따라 작동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독교 신앙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 기독교 신앙은 식사 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술 담배를 금한다든지 하는 개인의 사사로운 경건 생활의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뿐이다. 그리하여 기독교 정치인은 조찬기도회는 열심히 하지만 정치판은 정치 논리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 기독교 경제인은 아침 경건의 시간은 갖지만, 자본의 논리에 짓눌려 여느 기업인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세금을 탈루하기도 한다.

교회는 교회대로 교인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을 잘 하지만 하면 이른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여긴다. 개개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의 개신교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견지해 왔다. 곧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일차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일상생활의 영역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죄악이 가득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으로 치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생활에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여 기독교인들을 분리주의자 또는 배타주의자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사회는

비록 죄악이 넘쳐난다고 해도 포기하고 방치되어야 할 곳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어야 할 공간이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삶에만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회생활에도 확대하여 적용해야만 한다. 교회에서는 세속 사회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기독교의 가치를 부여하고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하는 윤리적인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작은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더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작은 교회의 규모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종교교육학자인 웨스터호프가 교인 수 250명이 넘으면 공동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작은 교회의 가능성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대형 교회가 되지 못해서 작은 교회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위해 작은 교회를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교회로 교회 되게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작은 교회의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작은 교회는 단순히 규모가 작은 교회라기보다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작은 교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교회가 갖는 장점은 첫째로, 교회 공동체성의 구현에서 유리하다. 작은 교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동체의 필수 요건인 대면(face to face)의 친밀한 인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적합하다. 작은 교회는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스스로를 개방하고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서 보다 더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형 교회들은 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구획이 나뉘짐으로써 분절화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와는 달리 작은 교회는 남녀노소를 아울러서 교제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신앙 공동체에 적합한 모습이며 이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역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작은 교회가 갖는 큰 강점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큰 교회일수록 참여자가 소수에 제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교인의 20%만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나머지 80%는 마치 고객과 같이 소극적으로 남아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모든 교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다수의 참여와 과정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구조이다. 큰 교회는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므로 교회조차도 관료제적인 특징을 닮아가게 되지만, 작은 교회는 일의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시하고 일보다도 사람 중심의 사역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로, 작은 교회는 아래로부터의(bottom up) 리더십을 통해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의 구현이 가능한 구조이다. 근대적인 리더십은 이른바 ‘교사-학생’ 모델로 리더가 정답을 알고 있고, 조직 구성원들은 그 정답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위로부터의(top down) 모델이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올바른 방법과 전략만 갖는다면 원하는 미래를 예견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다고

약속하는 근대화 기획에 매료되어 있다. 이들에게 그 미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는 대형 교회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회가 변화해나가는 방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사회는 점점 더 불확실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탈현대적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거창한 사명 선언이나 전략적 기획보다는 지역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에 주목하면서 지도자와 구성원이 함께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해가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적실성을 가질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들어맞는 보편적인 원리를 추구하고 거대 담론을 논하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 자기들만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탈현대 시대의 리더에게 적합한 덕목이다.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구현이 작은 교회에서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근접성이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는 지역 사회 안에 그것도 주로 주택가 안에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성장한 대형 교회들이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 땅값이 저렴한 변두리 지역, 심지어는 주택이 전혀 없는 허허벌판에 교회당을 짓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말은 지역교회라고 하면서도 지역주민들과 교감이 거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지역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이 반해, 작은 교회는 지역 사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심리적 장벽이 거의 없고, 지역 주민이나 지역 단체와의 연합 활동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큰 교회는 이른바 ‘자기 완결 구조’로 모든 일을 외부 단체나 자원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작은 교회는 자원의 부족으로 외부 단체나 자원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오히려 작은 교회의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개교회 내에 국한된 것이라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므로 지역의 다른 교회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은 교회의 장점을 살려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 5. 나가는 말

안으로는 사회 민주화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제도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덜하고, 교회도 자주 옮겨 목회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 교회는 1990년대 들어 교회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 교회 간 불균형과 쏠림 현상으로 작은 교회일수록 더욱 성장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하는 경우는 전체 개척 교회의 1%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성장주의 패러다임

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적실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 작은 교회의 가능성이 있다. 작은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보다 가까운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 교회의 특성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작은 교회의 정신을 추구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교회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작은 교회로서의 열패감을 딛고 작은 교회로서의 성서적 가치와 존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작은 교회라도 권위적인 리더십을 앞세워 교인들을 단순히 목회의 대상으로 여기는 독단적인 목회를 한다면 공동체의 의미와는 매우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규모를 떠나 작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규모가 큰 교회라도 ‘교회 안에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의 정신에 따라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힘쓴다면 얼마든지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작은 교회 정신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작은 교회가 갖는 여러 가지 강점에도 불구하고 자원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작은 교회들이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는 상명하달식의 관료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각각의 작은 교회들이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되 필요에 따라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작은 교회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작은 교회 정신이 몇몇 교회의 작은 몸부림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 양식으로 그리고 하나의 교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정신을 확대 재생산해야 한다. 그리하여 ‘양극화’라는 교회 쏠림 현상으로 큰 교회만 성장하고 작은 교회는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동체성을 상실한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 교계에서 새로운 대안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탈성장주의 시대를 위한 작은 교회 생태계와 생명망 목회

///

이원돈<sup>1</sup> 부천 새롭교회 목사

## 1. 오늘 우리의 주제는 탈 성장주의 시대의 교회의 미래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그려 볼때 더 이상은 고정된 고체의 근대적 시각으로 파악도 불가능하고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유동적 역동적 복잡계의 현상일 것이다. 이는 오늘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현상들의 연결망(network)으로 연결되어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상호의존 상호 침투 상호 관계망의 현상으로 보고 새롭게 현실을 진단 파악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생태계라는 말이 부각되어 사회와 기업을 진단하고 대안을 세우는데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로 상호의존적 생태적 연결망으로 제대로 파악 참여할수 있

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생태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오늘 이 자리는 탈 성장 시대에 교회의 생태계를 진단하고 본 발제자는 현장 목회자로서 탈성장 교회 생태계 시대의 대안으로 생명망 목회를 제안하려는 것이다.

2. 먼저 본격적인 교회 생태계와 생명망 목회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생태계의 입장에서사회와 교회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을 잠깐 살펴 보기도 하자!

3.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변동을 생태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살았던 산업사회가 그 황혼을 맞이하면서 탈성장을 포함한 탈 근대(포스트 모던)사회와 거기에 겹쳐 포스트 모던한 신주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최적화되었던 우리 삶의 생태계를 온통 교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포스트 모던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장 당황하며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력이 약한 집단이 바로 가장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 되었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한 한국 교회임이 부각 되면서 오늘 이 탈근대 탈 성장시대의 사회적 문제 집단으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 산업화 시대를 거칠게 용약해 보면 근대 산업화 사회란 대량 생산 소비 폐기를 특징으로 하여 물질 성장을 중심으로하는 화폐자본(물질)이 물신화 신이된 mammon의 사회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경제성장이 물신화된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스펙의 불안증폭 피곤 사회 이기도 한 사회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 이후 탈근대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바로 생각하는 이성이 실종이 되고 거대담

론과 역사 발전과 진보에 대한 확신 종말된 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현대인들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역사와 진리를 결코 생각하거나 이해하거나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오직 감정적인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의 스타일을 강요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오늘 교회에게 가장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종교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sation) 현상으로 교회마저도 더 이상 공공의 영역에서 공적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적 집단의 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집단이 되어가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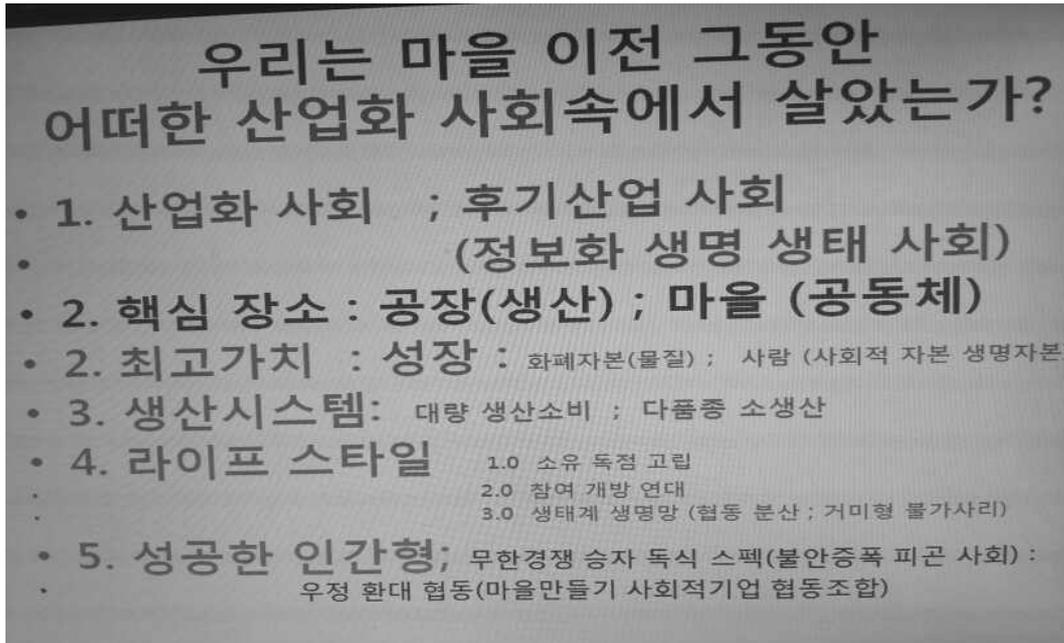
연세대 박명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시장과 기업의 논리가 전체 국가와 사회를 장악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사적 기업논리가 인간생활, 국가, 사회의 다른 모든 공적 영역까지 지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마저 사익 대변자로 전락하며 공공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적 기구들이 공공성을 상실하면서 개인들이 생존과 생활을 위해 직접 시장과 대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은 빈곤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다. 이미 사회과의 연대감이 종교특유의 기복적 성향으로 현세적인 개인이기 욕망의 성취로 전락하면서 사회변혁과 사회구원의 기치는 사라지고 개개인의 현세적 이기(利己)에 부합하는 신앙생활로 교회자체를 타락시키고 종교의 사사화를 가중시키는 우를 범해오고 있다. 현대사회 속에서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는 안목이 퇴색되었고, 그런 상황은 급격한 경제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거의 절대적 생존수단인 경제가 구조적인 양극화로 치달으면서 부(富)의 세습과 빈(貧)의 대물림이 구조적 악순환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양산되어 이미 사회중심에서 멀리 이탈된 소외자들에 대한 눈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교회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일부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된 자들의 몫으로 떠넘겨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 더구나 덩치가 커진 교회들이 이제 자신들의 세(勢)를 확장하는데 치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교회는 현실과 타협하고 정치세력에 순응하는 과정을 거치으며, 정치적으로는 우파화되고 권력지향적인 형태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익집단의 전형적 특성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sation)], 박명림 (연세대 교수)

그런데 이러한 포스트모던 탈 근대 사회가 다 부정적인 기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대 산업 사회가 1:99의 사회를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붕괴되어 가며 서서히 탈근대 사회가 동터 움을 보아야 한다. 특별히 이러한 근대 산업화 시대의

- ① 생산양식은 탈 산업 근대 사회에는 대량 생산 소비 폐기에서 다품종 소생산으로 바뀌고
- ② 라이프 스타일은 소유 독점 고립 2.0 참여 개방 연대 3.0 생명 생태의 사회로 바뀌며

- ③ 성공한 인간의 유형도 점점 무한경쟁 승자 독식 스펙(불안증폭 피곤 사회)에서 우정 확대 협동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바뀌어 가며
- ④ 권력은 분산되고 서로 협동하는 사회가 뜨고 있는 것 이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작은 교회 일각에서 새로운 교회의 생태계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크지 못해서 작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새로운 교회생태계에 대한 상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목회 생태계 위기, 교회 전체로 번진다.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부의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즉 부의 생태계 붕괴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 한국은 이미 목회 생태계의 파괴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20~30년 이내에 한국교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초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목회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생각할 때다.” 목회생태계 교란, 최윤식(미래학자, 아시아미래협회장)

그러면 건강한, 바람직한 교회 생태계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교회관은 ‘크냐 작냐’에 있지않고, ‘건강함’에 있다. 크와 작음의 싸이즈가 중요한게 아니라 건강냐, 건강하지 못한 교회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수적성장’이 아니라 ‘건강함’이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기 쉽고, 공동체성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작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작음’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 작은나무교회 나유진 목사

“우리는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크지 못해서 작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따라 작은 그 자체로 행복하고, 그 자체로 감사한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게으르거나 지저리 궁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는 한 교회를 ‘더 크게’, ‘더 호화롭게’ 성장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더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이다.” -더함 공동체 이진오 목사

이러한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꿈은 교회의 여부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질문을 교회의 크기 보다는 그 교회가 지역사회와 교회 내부에 생명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보고자하는 문제의식이다,



필자는 작은 교회의 사이즈는 단순히 몇 명이 적정 규모이다 하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인들과 목회자간의 소통의 생태적 관점에서 정해져야 할 것 같다.

작은 교회의 사이즈가 몇 명이 될까 그 숫자를 따지기 보다 더 중요하게 세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작은 교회의 여부는 교회 크기 보다는 그 교회가 지역사회와 교회 내부의 생명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사회와 교회의 생태계를 붕

괴시키기 때문이다. 작은 교회의 의미는 이 작은 교회가 교회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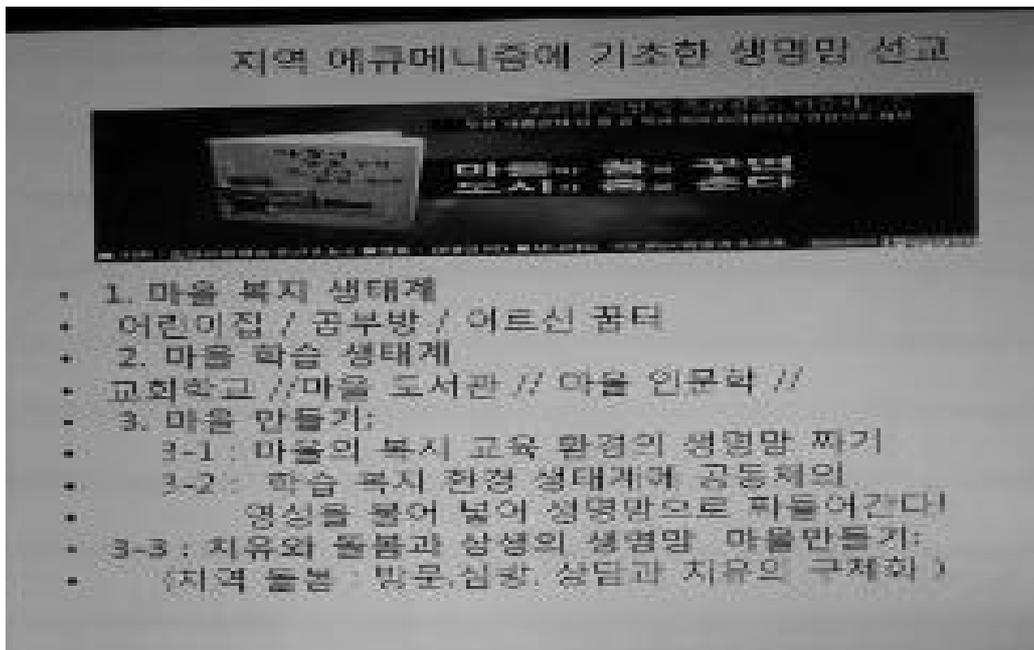
이러한 건강한 작은 교회란 지역 생명망을 짜는 작은교회로서 더이상 성장형 대형교회를 닮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작은 교회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교회의 생태계를 만드는 건강한 작은 교회란 지역사회의 복지 생태계 학습생태계 문화 생태계를 형성하며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 생명 사회경제 를 담지한 공공신학을 작은교회의 신학으로 삼는 교회 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교회는 교회 중심적이 아니라 마을 중심적, 성장 중심이 아니라 봉사 중심으로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이제 교회와 목사는 교인과 교회 대상만의 교회와 목사가 아니라 지역사회, 마을 단위의 마을의 교회와 목사, 지역 사회에 선한 관계와 영향력을 가진 교회와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와 목사가 지역의 교회와 목사, 마을의 교회와 목사로 변화되어 지역 에큐메니즘에 기초하여 지역과 마을의 생명망을 짜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 교회와 생명망 목회를 시작하는것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생태계에 새롭게 적응하는 교회의 첫 시작과 사명이 되어야 할것이다.

3. 결론 : 지역 에큐메니즘(local ecumenism) 에 기초한 생명망 (web of life) 목회를 꿈꾼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역 중심의 작고 영향력 있는 생명 생태 목회가 탄생을 해야 하고 미래 목회는 마을 단위의 지역 중심의 생명망 목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이것은 이제 교회목사가 교회에 갇힌 목사가 아니라 지역과 마을을 목회하는 마을과 지역의 생명망을 짜는 목사가 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지역 생명망을 짜는 작은교회란 더 이상 성장형의 대형교회를 닮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작은 교회로서 “복지적 동맹, 평생학습적 학습생태계, 마을만들기의 문화 콘텐츠와 생명사회경제를 담지한 공공신학을 작은교회의 신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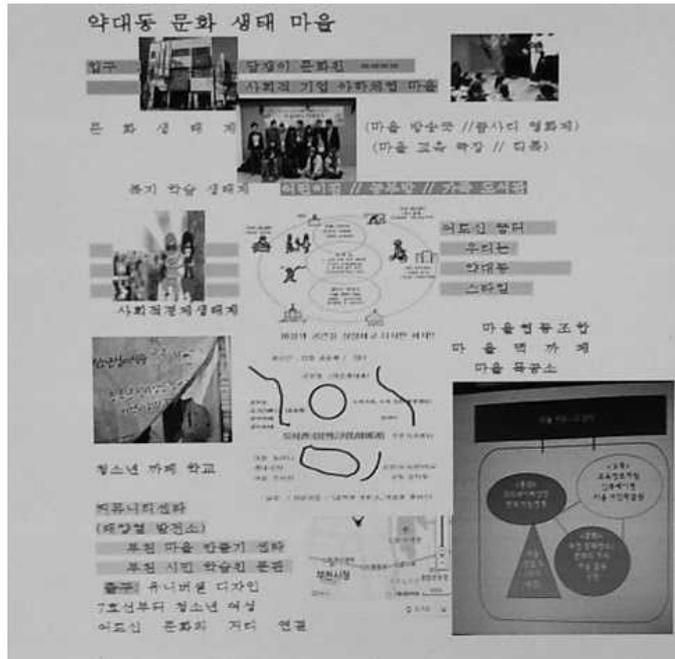
**이러한 새로운 작은 교회의 생태계를 만드는 교회는**

첫째로 작은 교회의 새로운 생태계는 새로운 복지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복지 생태계란 지역사회의 돌봄 노동과 복지동맹에 참여하는 복지 마을 만들기의 생태계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작은 교회의 새로운 생태계는 새로운 학습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있을 것이다. 작은 교회들이 형성해야할 새로운 학습생태계는 주일중심의 교회학교로 폐쇄된 교회교육이 아니라 최근 시민 사회중심으로 형성되는 마을의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지역사회 방과 후 학교 등과 함께 학습 생태계를 이루는 새로운 교육 학습 생태계가 될 것이다. 셋째로 작은 교회가 만들어 나가야 할 새로운 생태계는 문화 생태계로서 주류 문화담론을 넘어 다문화 가정 탈학교 학생 등 서브와 인디 문화 등 (최근 싸이나 김기덕 감독의 케이스처럼) 대안문화와 소통하는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작은 교회가 만들어 나가야할 새로운 생태계는 사회 경제 생태계로서 대기업이나 대형 교회 중심의 약육 강식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생태계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만들기 등 지나치게 경쟁 시장화된 경제에 대해 공동체적인 사회적 자본과 생명자본의 생명망을 짜는 사회경제 생태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 마을교회를 추구하는 생명망 목회의 몇 가지 목회의 특성을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마을과 지역사회를 강조한 생명목회로 생명망을 짜는 목회이다. 이 생명망 목회의 첫번째 단계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지선교로 출발한다. 둘째, 지역과 교회를 잇는 학습생태계를 구성한다. 교회학교와 마을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를 잇는 학습생태계 등이다. 셋째, 교회 안의 신앙적 생태계와 교회 밖 마을을 지역심방의 개념으로 묶는 영적 돌봄망이다. 성서교육과 함께 인문학교육과 시민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넷째, 기도훈련과 심방제도는 궁극적으로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봄에는 교인심방, 가을에는 지역을 위한 기도와 지역심방을 연결해 지역과 마을을 심방한다. 다섯

째,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지역심방팀과 지역기도망짜기를 연결해 지역선교를 실시한다.



결론적으로 오늘 모든 시대적 상황은 한국교회로 탈성장 탈 제도화 탈 사사회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의 생태계와 생명망 목회를 요청한다고 볼수 있겠다.<sup>31)</sup>

31) 31) 필자가 최근 생각하는 지역 에큐메니즘에 기초한 생명망 목회를 교회의 생태계, 스타일, 신학으로 다시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명망 목회란 공장중심의 산업화 시대의 성장주의의 방식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돌보고 살리는 마을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생태운동으로서 이것이 진정한 한국 사회의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회와 목사가 지역의 교회와 목사, 마을의 교회와 목사로 변화되어 지역 에큐메니즘에 기초하여 지역과 마을의 생명망을 짜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 교회의 생명망 목회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생태계에 새롭게 적응하는 교회의 첫 시작과 사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이를 위해 생명망 목회는 '작은교회의 새로운 신학과 스타일, 그리고 생태계에 관한 상상'을 하며 미래 목회는 마을 단위의 지역 중심의 생명망 목회를 지향하며  
 "작은교회 운동은 교회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을 중심적, 성장중심이 아닌 봉사 중심으로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것이다.

**1. 작은 생명망 교회의 생태계**

- ①. 건강한 생태계를 살리는 목회이다.
- ②. 개교회를 넘어서서 마을을 목회해야 한다.
- ③. 지역으로 흩어져야 한다,
- ④. 수직에서 수평적 제도 : 거미에서 불가사리처럼 흩어지는 공동체: 마을 생태계 생명망 목회 형성

**2. 작은 생명망 교회의 스타일**

- ①. 제도화를 넘는 영상: 경쟁 독점 고립을 넘어 타자 이타 우정과 호혜와 우정으로 나가는 스타일
- ②. 탈근대 시대에 맞게 조직이 아니라 생명망 망짜기 스타일 전개.
- ③. 교회와 마을의 경계선에서 참여 공유 연대 해방과 직관의 테마를 붙잡는 교회 스타일

- ① **탈 성장주의 생태계**로 작은 교회의 생명망짜기 신학과 스타일이 필요하다.
- ② **탈 제도화** 영성으로 경쟁 독점 고립을 넘어 타자 이타 우정과 호혜로 나가는 스타일이 요청된다.
- ③ **탈 사사화** 신학으로서 생명 정의 평화와 같은 공적 신학 전개되어야 한다.
- ④ 교회 자체가 지역사회에 기초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가 되기 위해 지역 사회의 한 생태계로 지역 선교적 교회 생태계 형성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2013의 우리 개인과 공동체는 어떠한 부활을 꿈꾸어야 하는가! 최근 SBS 뉴스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새 교황이 여성과 이슬람 신자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관습을 깨고 기득권 버리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교황은 또 사제들을 향해서는 출세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헌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의식에만 얽매이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 타인의 삶을 어루만지며 교회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1. 첫째로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는 이세상이 요구하는 보다 깊은 영성에 응답해야 한다.  
오늘 이세상이 찾는 신앙은 현세적인 축복이나 내세의 구원이 아니고 보다 깊은 영성적 체험에 기초한 영성으로 아직도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패배주의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해방시킬 새로운 교회의 영성 스타일을 찾는 부활의 아침이 되길 기도드린다.
2. 둘째로 오늘날 세상은 “제도 종교”를 넘는 보다 영적인 종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탈 제도 시대에 있어서 우리 작은 교회들은 탈 성장 원리에 더욱 충실하며 오히려 선물 경제와 타자를 환대하는 공공성에 기초한 우정과 호혜의 부활의 공동체를 꿈꾸는 작은 교회의 신학을 전개하는 2013 부활의 아침이 되길 기도드린다.
3. 지금 우리 시대의 종교는 제 4의 물결을 일으키는 근원지가 되어야 하는데 2물결 산업화 3물결 정보화 물결을 넘어 4의 물결은 한마디로 정신적 문화 중심의 사회 영성적 시대를 말한다.  
제도적 교회를 넘어서는 수직에서 수평적 흠어지며 건강하고 새로운 마을 생태계를 만들고 생명망을 짜는 생태교회와 생명망 목회가 탄생되는 2013 부활의 아침이 되길 기도드린다. 이제 한국교회는 자기 몸집의 성장에 몰두하기보다는 이러한 지역사회와 마을의 대안적 생명망 짜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전국의 마을과 마을의 교회 마다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지역의 생명망 운동이 들불처럼

---

④.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 모으기 보다는 흠어지는 교회 스타일

### 3. 작은 생명망 교회의 신학 : 탈성장 공공성

- ①. 탈 성장주의 신학으로 작은 교회의 신학과 스타일이 필요하다.
- ②. 교회 자체가 지역사회에 기초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가 되기 위해  
지역 사회의 한 생태계로 지역 선교적 생태계를 형성을 위한 신학,
- ③. 생명 정의 평화와 같은 탈 사사화 신학이 전개되어야 한다.
- ④. 개인의 내적 심리 치유(힐링)이 아니라 사회적 힐링과 영성에 기초한 공공 신학 정립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 모으기 보다는 흠어지는 신학 정립,
- ⑤ 이성과 감성을 넘어서는 직관과 통찰의 신학으로  
작은 교회 생명망 교회의 신학이 요청된다

럼 일어나길 바란다.

## 제안 : 새로운 교회 사회 생태계를 향한 제안 3개

**제안 1 :** 에큐메니칼 그룹 우리 마당을 중심으로 "기독교 청년 단체와 작은 마을 교회가 연대하여 지역과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청년 인큐베이팅"이 추진 중에 있다.

**제안 2 :** 에큐메니칼 그룹 생평마당 교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루터 500주년 작은 교회 대회"가 준비중에 있다.

**제안 3 :** 청어람아카데미 양희송 대표가 [다시 프로테스탄트]에서 제안한 대로 지금 새로운 교회 생태계와 크리스찬 지식생태계와 시민생태계 형성이 중요한 시점인데... 크리스찬 지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주체이며, 시민 사회와 네트워크되어 공공성의 확대를 위해 유의미한 기독교로 재탄생하게끔 이끄는 시민 생태계의 주역일 수 있을 것이다(김준호 목사).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작은 교회와 마을 생태계와 생명망 구축을 위해 크리스찬 지식생태계와 시민생태계가 함께 파트너쉽을 이루어 할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자!!

# ‘프로테스탄트들’을 위한 교회론

///

양희송<sup>1</sup> 청어람아카데미 대표

## 1.

줄저 [다시 프로테스탄트](복있는사람, 2012)가 나온 지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든다. 개인적으로는 과분한 호평을 누렸다 생각한다. 상당히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진지하게 읽었고, 그 못지않게 청장년 성도들의 환대를 받았다. 내가 제안한 몇몇 개념과 설명방식은 그들의 해묵은 갑갑증을 풀어주었고, 앞으로의 방향제시에도 많은 공감을 표했다. 다만, 언제나 반복적으로 나왔던 질문 중의 하나는 교회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그것은 사실 이유 있는 불만인데, 나 스스로 두 가지 이유에서 교회적 대안을 구체적 수준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는 ‘교회’에 관한 논의가 일종의 블랙홀처럼 다른 모든 논의를 빨아들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목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쟁점들을 나열하면서 문제와 대안을 논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논의의 시야가 좁혀지면서, 동시에 사안의 경중보다는 체감적 시급성이 논의 국면을 압도하기 일쑤이다. 나는 새로운 공룡의 등장 보다는 ‘개신교 생태계’란 큰 그림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에 교회론이나 교회 모델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둘째는 근본적으로 목회와 교회 현장의 구체적 대안은 목회자들 손에서 나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성직주의’를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직업윤리’와 ‘전문직으로서의 목회’를 담당하는 이들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임을 상기하자는 것이다.) 그 대안은 바깥의 누군가가 손에 쥐어주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얻어질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목회자들이 저마다의 대안을 들고 나타나 유효적절성을 평가하며 이 논의를 풍성하게 주도해 주기를 기다린다.<sup>32)</sup>

32) 이런 취지에 걸맞는 가장 최근의 사례는 김형국목사의 [교회를 꿈꾼대](포이에마, 2012)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니들목 교회의 10년 사역을 바탕으로 펼친 그의 논의는 좀더 꼼꼼히 뜯어보고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 글에서 나는 책에서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시사점을 좀 더 명료하게 재진술함으로써 이런 논의가 전개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아가서 대안 마련을 위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책의 제1부는 위기인식에 관한 것이다. 한국 개신교는 현재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으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난 30년간의 패러다임이 시효를 다한 탓이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더 열심히 굴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풀려면, '교회 혹은 교계(church society)'보다 '기독교 사회(Christian society)'란 좀더 폭넓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제2부는 문제의 핵심을 '개신교 실패(Protestantism failure)'로 파악했고, 이를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 보았다.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가 그것인데, 이 각각은 역사적 종교개혁의 원리와 경험에 대한 무지와 일탈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제3부는 대안 모색을 위한 제언에 해당하는데, 대안주체들이 갖추어야 할 내부적 덕목으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제안해 보았고, 이를 통해 덩치 큰 공통 같은 교회/교계가 아니라 '개신교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라야 제대로 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론으로 이 모든 과제를 수행할 '세속성자'의 등장을 촉구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런 내용을 놓고 토론을 하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물음들이 있다. '개신교의 감소는 그렇다 치고, 천주교의 성장은 개신교나 불교의 문제를 극복한 때문이라고 봐야 하나?', '성직주의를 버리고 난 후, 목회자의 역할과 정체성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 '성장주의에 대한 극복은 '성장 반대'인가, '건강한 성장'인가?', '승리주의가 개신교만의 것인가? 한국사회와 그 내부의 종교들에 공통된 특성은 아닌가?' 등등. 각각의 항목들과 이에서 파생되는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논의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탈성장주의 시대, 교회를 말하다'는 주제 아래 나는 다음의 몇 가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 1) 개신교의 '탈성장 시대' 인식

종교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전체 종교인구는 1985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42.6%(85), 50.7%(95), 53.1%(05)) 2005년 통계를 통해 잘 알려졌다듯 불교는 22.8%, 개신교는 18.3%, 천주교는 10.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 개신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지난 10년에 비해 현격한 성장률의 꺾임을 보이고 있고, 아마도 2015년 예정된 종교인구센서스에서도 이 추세는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sup>33)</sup> 개신교의 '탈성장 시대'란 진단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

33) 2013년 상반기 어느 토론회에서는, 예정통합측 장신대 신대원초시 지원자가 처음으로 줄었다는 것과 교단 통계에서 안수집사 수가 줄었다는 내용이 등장해서 주목을 받았다.

만, 골목마다 있는 편의점 수가 2만개인 시대에, 교회가 14만, 목사가 78,000명이란 현실과 이에 더해 매년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회자가 수천 명이란 점에서 체감현실은 매우 열악하다.<sup>34)</sup> 이 과밀한 생존경쟁의 장을 앞에 두고 목회자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거의 전적으로 시장경쟁에서 패자들을 탈락시키는 방안만 남았다. 게다가 개신교 전체의 ‘평판(reputation)’은 까먹기는 순식간이지만, 축적하기는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기에 단기간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

한국 개신교의 ‘탈성장 시대’는 외부 환경의 변화 이전에 개신교의 악화된 내부 환경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자초한 성격이 강하다. 게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노회나 총회, 교계연합기구 등 제도나 구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결가능성도 희박하다. 이런 조건에서 ‘교회성장’이란, 상당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유력한 집단에서만 가능한 사건이 되거나, 기존의 목회적 관행과 거리를 두고 파격적으로 틈새나 벤처를 시도하는 가운데 성공 사례가 나오는 이례적인 경우 외에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 된다. 아마도 탈성장 시대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목회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책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척교회의 난관은 한국사회 자영업의 위기와 다르지 않고, 부교역자들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이며, 신학생들은 청년실업 문제로 직결되는 구조이다. 목회자들의 전업(career change)이 좀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혹은 자신의 직업을 갖고 목회에 참여하는 방식(bi-vocational) 등의 양상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이다.

## 2) ‘성장주의’는 어떻게 ‘교회론’이 되었나?

자주 경험하는 것이지만, 한국 개신교에는 ‘성장주의’ 외에는 교회론이 없다.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이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나쁜 교회이다. 우리는 교회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성장으로 귀결되는 모든 것은 정당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성장을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것도 무능한 것으로 치부되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한국 교회에는 ‘공룡이 되어서 생긴 문제’와 ‘공룡이 되지 못해 생긴 문제’만 있는 셈이다.

교회 안에는 ‘성장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교회의 크기는 마구 증가할 수는 없다. 성장을 가능케 하는 두가지 축이 있는데, 첫째는 ‘무대(stage)’이다. 설교 혹은 무대 위의 스펙터클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만큼 교회는 커질 수 있다. 둘째는 ‘조직(structure)’이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조직화 되는 수준까지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앞서거나 뒤쳐거나 하면서 어느 수준에서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두 요소 위에 어떤 내용이 실려서 전달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우리가 교회론을 말할 때에는 ‘양적(quantitative) 평가’와 ‘질적(qualitative) 평가’를 뒤섞거나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조직이 커지면서 사람들 간의 교류와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람들은 질적 차원의 체감적 만족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양적

34) [다시 프로테스탄트], 97.

측면을 개선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설교 내용이 신학적으로 부실하거나, 목회자가 신앙윤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질적인 측면에서 다름 문제이다. 이 둘을 혼동하거나 뒤섞는 범주 오류는 교회의 존재가치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키고, 문제의 원인을 오도하게 한다.

나는 이런 측면에서 ‘셀교회 운동’이나 ‘가정교회 운동’에 대해 약간은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고, 여러 종류의 ‘작은교회 운동’ 역시 좀 유보적으로 보게 된다. 교회의 형식적 측면의 변화가 분명히 내부 구성원의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이전의 구조에서 간과되었던 측면을 신선하게 환기시키는 지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교회가 지향할 ‘가치의 재구성’이란 측면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큰 덩어리를 잘게 쪼개어 관리(divide & rule)함으로써 통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조직 관리의 도구 수준에 머문다면, 그것은 내건 구호와 방향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매우 실망스런 적용이 될 것이다. 지난 30년간 ‘제자훈련’이란 개념을 목회에 도입하여 크게 주목 받았던 ‘사랑의교회’가 현재 비판 받는 자리에 선 이유도 그 근처에는 성도 개인의 신앙적 성숙을 위해 규모의 성장이 조절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sup>35)</sup>

### 3) ‘탈성장 시대’를 위한 ‘탈-성장주의 교회론’

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교회론이 좀더 급진적으로 나아가서 존 밀턴이 말했던 ‘개인으로서의 교회(church as individual)’에 이르는 충분히 개인주의적인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론의 모색은 결국 개개인을 충분한 신앙적 주체로 세워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설부른 집단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진단은 우리를 ‘프로테스탄트적 교회론’의 재정립으로 이끈다. 내게 ‘탈성장(주의) 시대’를 위한 ‘탈-성장주의 교회론’의 요청이란, ‘성장’이란 미명 아래 개인을 집단의 하부단위로 종속시키고 성직자들을 위계의 상층부로 올려놓았던 봉건적 중세교회로부터 개혁을 시도한 종교개혁자들의 문제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sup>36)</sup> 대표적인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 하나였던 ‘오직 믿음으로(sola fide)’는 그 믿음의 주체로 ‘생각하는 개인(a thinking individual)’이란 근대적 상상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자신을 둘러싼 집단과 신앙고백적으로 불화할 수 있는 독자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근대적 ‘양심의 자유’로 직결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떨어질 수 없고, 이는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된다.<sup>37)</sup> 적어도 개신교인, 혹은 개

35) 사랑의교회의 경우, 전임 옥한흠 목사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딜레마를 느끼며 질적 측면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그러나, 후임 오정현목사의 경우는 이런 딜레마를 읽을 수가 없고, 압도적으로 양적 측면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질적 측면을 희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의 대비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36) 줄저에 대해 본격적인 서평을 제공한 김진호목사는 “목사를 버려야 교회가 산다! 정말로?”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1214113931](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1214113931))에서 ‘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고, “다시 프로테스탄트”인가?’를 물었는데, 나는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개신교 종교개혁의 자원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며, 그런 작업 없이는 어떤 ‘새로운’ 것도 뿌리깊은 변화를 추동하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이 유행어로 그치고 말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다시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가톨릭 내의 개혁적 운동들, 아나뱃티스트 개혁 등을 배제하고, 루터와 칼빈 등의 흐름만을 협소하게 인정하자는 말은 아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범주를 그 개혁운동이 통찰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었던 동시대의 여러 흐름들과 함께 고려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의미를 외연확장하려는 시도가 당연히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신교회라고 자처하면서 이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은 자해행위이다. 이 흐름이 던지는 문제의식이 버거워서 고군분투할 수는 있지만, 방향성 자체를 포기하고 오래된 집단주의와 위계질서로 복귀하는 것이 어떻게 개신교적으로 정당화가 될 수 있겠는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론’을 이렇게 ‘개인’의 중요성을 중심에 놓고 구성하게 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개인들을 ‘공동체’로 참여하게 하는 양식 속에서 교회의 예배, 직제, 선교 등을 재배치하게 된다. 중세교회가 ‘교황/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ubi Papa, ibi ecclesia)’는 원리를 따른다면, 개신교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among you) 있느니라’(눅 17:21)는 말씀을 상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교회의 민주적 운영과 참여가 중요한 까닭은 교회가 사제계급을 통한 위계를 따라 진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각 개인이 교회로 함께 서는 장’이 교회로 인식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 배우고, 서로 세워나가는 것이 마땅하며, 권위와 자원의 배분이 기울거나 일방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정신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정치학에서 ‘견제와 균형’이라 일컫는데, 이런 근대정치의 원칙이 종교개혁의 교회론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 4) 교회의 존재 양상 : 고체, 액체, 기체

내가 책에서 지적한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 등을 극복하는 방안은 개신교(신앙의 개신교)성을 되찾는 방식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대안들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나타날 수 있다. 내가 주장한 ‘세속성자(a secular saint)’와 ‘개신교 생태계(Protestant eco-system)’사이 어디쯤에 ‘교회(church)’가 존재할 것이다. 교회의 존재 양상(mode of being)을 전형적인 구조(structure)과 내용(contents)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고체, 액체, 기체로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핵심은 개인의 질적 성숙을 위해 구조와 내용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있다.

고체(solid)형 대안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처해 있는 현실대로, 주어진 구조나 틀은 변화시키는 제도개혁보다는 그 틀을 운영하는 주체를 바꾸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안의 핵심은 세대교체 등의 인적 청산이 될 것이다. 새로운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의 등장을 통해 묵은 체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나는 최근 급작스런 교황의 사임과 새로 뽑힌 교황의 파격적 행보가 보여주는 것이 이 모델의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액체(liquid)형 대안은 제도적 변화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이다. 대체로 인적 변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새 술은 새 부대에”란 구호가 설득력 있게 사용된다. 의외로 이런 대안들의 성공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안팎을 동시에 바꾸는 것이 적잖게 어렵기 때문이다. 종종 파격적 형식실험을 매우 전통적인 리더십구조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매우 비형식적인 성령운동이 사실상은 매우 위계

---

37) 세간에는 칼빈이 제네바의 술한 종교재판과 처형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당시 고문서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문제에서 칼빈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반론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 세르베투스의 처형 문제를 놓고 볼 때, 유보적이지만 결국 처형을 찬성한 칼빈보다는 이에 반발한 카스텔리옹의 입장이 훨씬 근대적이며, 동시에 개신교적으로 옹호할만한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적이고 가부장적 리더십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이 그 경우이다. 동시에 구조와 내용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을 때, 변화의 동력을 어디서 공급할 것인가를 잘 이해하는 이들이어야 이런 역설적 상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새로운 구조를 만들게 되면,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기체형 대안은 아마도 가장 해체적인 방식이 될 것인데, 교회 경험이 조직이나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용산참사 이후 이어진 '촛불교회'라든지, 다양한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며 예배경험과 공동체적 소속감을 공유하는 하나의 현상(phenomenon)이나 운동(movement)으로서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묶어 내는 연결망은 느슨하고, 자발적이어서 누가 임의로 강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가나안 성도'들 상당수가 현실적으로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데, 탈교회 상황이 항상적 조건이 되면 필요에 따라 접속하고 탈퇴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와 구조들 사이를 유영하며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모델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물론 이 모델은 지속성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마치 물고기가 군락을 이루어 이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작은 개체들이 모여서 존재감 있는 규모로 나타나기도 하고, 계속 모습을 바꿔가며 이합집산 하되 그 흐름 속에 꾸준히 존재하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대안의 양상들을 논하는 이유는 현실교회의 다양한 상황과 처지를 최대치로 수렴하는 논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한 이유이고, 자신들의 조건이 처한 지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대치와 한계치를 동시에 가늠해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한국교회 안에 '고체형 대안'이 7, '액체형'이 2, '기체형'이 1 정도의 비율로는 등장해주면 좋겠다 싶다.

나는 '개신교 생태계'의 내부에 '교회 생태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이와 다른 층위에서 '지식 생태계'나 '시민 생태계'가 작동하도록 그림을 그려가자는 제안을 한 셈이다. 여전히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그런 배치 위에서 "교회가 지향할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느낄 것이다. 아마도 '물'에 대한 논의가 많이 길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물'을 함의한 다음에야 우리가 치를 경기의 내용이 축구인지, 야구인지 분명해질 것이다. 이제 경기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보여줄 일이다.

발행일 2013년 4월 11일

편 집 청어람아카데미

본 발제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주최 단체에 있으므로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